

저를 멀리한 이유도, 오늘 떠나기로 결심한 이유도요. 아! 비르지니는 어쩌면 저를 경멸하고 있겠군요!”

그리는 사이 저녁 시간이 다 되어 다들 식탁에 앉았는데, 사람들은 밥 먹자고 모인 자리에서 각기 서로 다른 집념에 사로잡혀, 식사도 거의 하지 않고 말도 좀처럼 꺼내지 않았지. 비르지니가 처음으로 식탁에서 일어나,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 와 앉았다네. 곧이어 풀이 비르지니를 따라나 서더니, 그 옆에 와서 앉았어. 둘은 너 나 할 것 없이 한동안 깊은 침묵을 지켰네. 열대지방에서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그윽한 밤 중 하나였으니, 가장 숨씨 좋은 화필도 그 아름다움을 읊기긴 힘들 겠세. 창공 한가운데 보이던 달은 구름 장막에 둘러싸여 사방으로 서서히 달빛을 흘 뿌리고 있었네. 그 빛은 어느새 섬 안의 산과 산봉우리로 조금씩 퍼져나갔고, 거기서 은빛 녹색이 찬란하게 빛났지. 바람은 숨을 죽이고 잤아들었네. 숲 속에서, 계곡 저 깊은 곳에서, 바위 꼭대기에서, 새들의 작은 울음소리와 조곤조곤 귀를 간질이는 소리가 들려왔지. 새들은 맑은 밤과 고요한 공기를 만끽하며 둥지에서 서로를 어루만지고 있었네. 모두가, 하물며 곤충들까지도, 풀밭 아래서 바스락거리고 있었어.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은 바다 한가운데 비쳐 거 기 맺힌 그림자가 바다와 함께 출렁였지. 비르지니는 광활하고 어두컴컴한 수평선을 초점 없는 시선으로 훑어보았네. 어선들에서 뿜어나오는 붉은 불빛이 섬의 해안선과 바다를